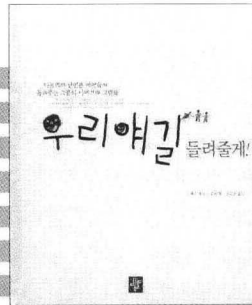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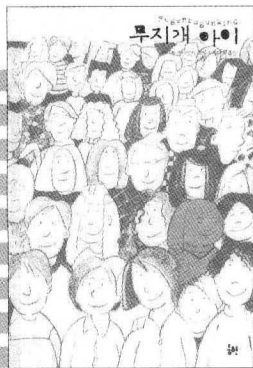


나 못지않게 슬픈 가족들이 있어

《무지개 아이》 에디트 슈라이더 빅케 | 유혜자 옮김 | 동현 | 70쪽 | 값 7,000원

“새 식구가 생기는 게 싫어요.” 아콕과 셀리나 두 친구의 입이 나왔습니다. 아콕은 동생이 생겨 부모님들이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라는 걱정, 셀리나는 아버지에게 새 여자가 생겼다는 걱정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불만만 가질 순 없죠. 아콕과 셀리나만큼 힘든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콕의 새 식구로 태어난 나오미는 다운증후군이란 병까지 갖고 있고, 셀리나의 엄마는 아빠의 빈자리 때문에 셀리나만큼이나 힘들어 하십니다. 두 아이가 운명처럼 나타난 새 가족을 잘 돌보고,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나보다 힘겨워하는 가족을 보듬고 챙겨준다는 이야기. 아콕이나 다운증후군 나오미에게 좋은 오빠가 되고, 셀리나가 홀로 남겨진 엄마에게 좋은 딸이 되는 과정들을 그린 짙막한 동화입니다. 엄마 뱃속 세계에 있는 나오미 이야기와 뱃속 밖에 있는 아콕, 셀리나 이야기를 교차시켜 놓은 독특한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동물 이야기, 웃으며 교훈도 얻어요

《팔만대장경 속 열두 동물 이야기》 이금이 글 | 한수진 그림 | 보물창고 | 120쪽 | 값 7,800원

‘깨달음’을 주는 우화들을 담은 책입니다. 부처가 석가모니로 태어나기 전, 동물로 삶을 살던 시절의 이야기를 우리작가 이금이 씨가 맛깔스럽게 적었습니다. 특히 ‘윤회사상’을 근본으로 한 교훈적인 이야기들이지요. 기령 새가 없는 나라에 나타난 까마귀를 길조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다른 새가 나타나자 태도를 얼른 바꾸며 까마귀를 멸시한다는 이야기는 시시각각 변덕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비판합니다. “나도 돼지처럼 놀고 싶다”고 말하는 망아지 이야기에선 “모두 제 할 일이 있다”는 엄마말의 충고가 관건입니다. 개는 농장을 지키고, 닭은 알을 낳고, 소는 밭을 갈고 다 제몫의 일을 하고 있으니 남의 팔자만 좋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충고이지요. 직접적인 충고나 조언도 좋지만 동물 우화를 재미나게 읽어가며 교훈을 얻어가게 해주는 이야기들입니다. 팔만대장경이니 우화라고 해서 예스런 느낌이 묻어날까 싶지만 망아지, 새, 사자, 호랑이 그림을 생동감 있게, 현대적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상처가 많지만 우리도 똑같은 아이들에게

《우리 애길 들려줄게!》 시벨라 윌크스 엮고 씀 | 윤길순 옮김 | 디딤돌 | 72쪽 | 값 10,800원

‘난민촌 아이들’이라고 하면 으레 검은 얼굴에 굶주려 마른 아이들을 떠올립니다. 전혀 틀린 건 아니죠. 총과 대포 소리에 놀라 하루에도 몇 번씩 집을 꾸러 도망가야 하고, 헬기에서 떨어지는 지원물자를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 혈안이 된 아이들. 평범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과는 뭔가 다를 겁니다. 《우리 애길 들려줄게》는 그렇다 해서 이 아이들에게 아이다움이 없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극에 달한 환경 속에서 꿈, 희망, 사랑 같은 것들을 키워가려 하거든요. 아프리카 난민촌 아이들의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전쟁에 대한 공포와 상처도 간직하고 있으나 그 속에서도 나름의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하루 종일 고단하게 도망 다닌 흔적,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식량을 받는 모습을 담은 그림 등을 보면 마음이 싸해지지만 아이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웃고 노는 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측은하다는 눈빛으로만 이 친구들을 바라봐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책입니다.

발레, 아무나 즐길 수 있어요

《춤추는 검도 소녀 미나》 남인숙 글 | 신동욱 그림 | 보물섬 | 226쪽 | 값 8,900원

“더 이상의 여성백조는 없다” 발레리노들만 등장하는 ‘백조의 호수’가 공연계에 화제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책 역시 여성스러움의 대명사, 고급에 술이란 꼬리표를 달던 발레를 대중적으로, 새롭게 재평가하는 시도입니다. 갑자기 발레에 푹 빠져 버린 말괄량이 검도 소녀 미나가 발레를 알아가는 과정을 그리면서 동시에 유명 발레 15편을 선정, 수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발레 관련 정보들과 소설적인 허구 이야기들을 함께 엮은 작가는 미나의 발레 경험담을 통해 “공연을 보고 즐기는 것도 발레를 접하는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지나친 찬사를 갖고 나완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기보단 매우 일상적인 예술의 하나라고 느껴보라는 권유입니다. 발레의 생성, 최초의 발레리나, 언제부터 추웠는지 등 발레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도 함께 수록하고 있는 책. 여자 아이들도 좋지만 남자아이들에게도 소개할 만합니다.

가슴 따뜻한 첫사랑, 가슴 시린 사복 사랑

《내 사랑, 사복》 이옥수 지음 | 세계절 | 202쪽 | 값 7,500원

사춘기 여중생이 두 가지 사랑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하나는 탄광촌 오빠를 향한 짝사랑, 하나는 온통 검은빛으로 이루어진 탄광촌 마을을 향한 사랑입니다. 리얼리즘 작가 이옥수 씨의 《내 사랑, 사복》은 사춘기 시절의 보편적 정서와 특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이의 특수한 감정곡선을 병렬시켜놓습니다. 감수성 풍부한 나이의 수하는 두려움, 설레임으로 다가오는 첫사랑의 감정을 여느 아이들처럼 받아들이며 행복해하죠. 그러나 현실은 사랑처럼 달콤하지 않습니다. 수하가 사는 탄광촌 마을에선 열악한 노동환경에 항거하며 싸우는 마을 사람들의 눈물이 존재하지요. 핑크빛 첫사랑과 온통 흑빛 뿐인 탄광촌을 향한 사랑. 대조적인 두 사랑을 모두 키워가면서 남모름 성장통을 겪는 아이의 이야기로 첫사랑을 겪는 소녀적 감성과 현실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소년의 내밀한 감정곡선을 제대로 좇고 있는 소설입니다. 사춘기 소녀의 심리소설로도 읽히지만 사복 향쟁 기록으로도 읽힐 만큼 현장감까지 담보하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도 울 때가 있어

《힘든 때》 비바라 슈크 하젠 글 | 트리나 사르트 하이만 그림 | 이선오 옮김 | 미래M&B | 32쪽 | 값 8,500원

아이들에게 아빠는 '메칸더 브이'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의 싸움에서도 지지 않을 것 같은 불사의 존재.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아빠도 때론 고개를 푹 숙이고 좌절합니다. 《힘든 때》의 아빠는 매우 평범한 우리네 아빠입니다. 아이는 강아지가 갖고 싶다고 조르지만 아빠는 "지금은 힘든 때"라고 말하지요. 평소 먹던 시리얼 대신 양이 많고 값싼 시리얼을 먹는 아빠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던 아이는 급기야 대낮에 퇴근하는 아빠를 보면서 뭔가를 눈치 채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형편이 어려운 힘든 때라는 것을 말이지요. 가족들의 내밀한 심리변화를 섬세한 흑백 그림으로 보여주는 책. 아빠도 좌절하고, 울고, 쓰러지기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원하는 것을 언제나 가질 순 없고 때론 인생의 힘든 때가 오기도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세 가족이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내 아이지만 늘 예쁜 건 아니라고!

《내 이름은 자가주》 틴 블레이크 글 · 그림 | 김경미 옮김 | 마루벨 | 40쪽 | 값 9,200원

"아이 키우는 거 보통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어른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이야기.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 앞으로 어느 날, 소포 하나가 도착하고 소포 안에 담긴 분홍빛 동물 '자가주'가 온갖 정신없는 사건들을 일으키며 다른 생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가주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존재임에 분명하지만 때론 뻔뻔 울대대면서, 집안을 한껏 어지르면서 부부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놓지요. 귀저기 같아놓고 나면 또 큰 일을 보고, 애써 재우고 나면 어느새 잠에서 깨 울며 보채는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청년이 된 아이가 결혼할 여인을 데리고 부모님을 찾아갔을 때 부모님은 갈색 펠리컨이 되어 자녀를 맞는 결말 부분에선 인간이 노인이 됐을 땐 다시 아이로 돌아간다는 삶의 진리까지 들려줍니다. 철학적이고 심오한 주제를 바탕에 깔고 있지만 유쾌하고 발랄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어려움을 덜어낸 그림책.

1980년 광주와 누나, 이제야 이해합니다

《누나의 오월》 윤정모 지음 | 산하 | 184쪽 | 값 7,000원

우연한 기회에 기억 저편으로 떠나보낸 누나와 조우하게 되는 사춘기 소년의 이야기. 시골에서 광주로 나와 혼자 하숙을 하고 있는 사춘기 소년 기열이는 우연히 5·18 민주묘역을 찾아가다가 5년 전 죽은, 기열이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누나와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소설은 한 편의 '이해과정'입니다. 생활고에 찌들어 다방 종업원, 공장 등에 다니던 누나를 이해하지 못하던 기열이가 당시 누나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광주민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상처까지 이해하는 과정 말이지요. 감성이 풍부한 사춘기 소년의 오해풀기 과정을 보여주면서 뒤늦게나마 자기 자신과 누나의 존재 그리고 역사의 상처를 뚝뚝하게 인정하는 아이의 성장과정을 문학성 있게 그려내는 소설입니다. 토론 수업 주제인 '어른'에서 '폭력'과 관련된 주제가 나오고, '폭력' 이야기를 통해 5·18 민주묘역 답사가 시작되고, 그곳에서 발견한 한 장의 사진을 통해 누나를 찾게 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스토리가 흥미진진합니다.

김청연 기자